성도의 벗 2 1993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예수께서 견으로 신길 토마스 에스 몬순 부대관장 ........................................ 2
브리간 영과 사회적 책임 아더 알 빈센트 ......................................................... 10
가족 오랜 : 사전으로 보는 이야기 ................................................................. 18
피지 : 신앙의 섬 실리 미크 손디스 ................................................................. 32
폰차이 주트리피 : 영적으로 준비된 데이비드 미첼 ........................................... 42
배우자의 행복 웨번 엘 프루이트 ........................................................................ 46

청소년 런
그림책 간행 말리 소우범 ................................................................. 8
숨겨진 고민 리사 에어 존슨 ........................................................................ 26
성스런 대지에 서서 그레고리 엔시나 빌리코프 ............................................... 30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 1
방문 교육 메시지 : 주님을 매일 찾음 .......................................................... 25
교회 및 지역 소식 .................................................................................. 65

여린 이란
물론경 이야기 : 엠론아이하에서의 엘마의 선교사업 ....................................... 50
심심풀이 ................................................................................................. 53
함께 나누는 시간 :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디 에드워즈 ................................ 54
인천하고 확실한 길 비커 앤더슨과 로알리 월키 ......................................... 56
친구가 친구에게 얼라이모럴 켈트리 걸로 ..................................................... 60
1993년 2월호

성도가 묻는 밤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식적 한국어판 출판물입니다. 본 장지는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됩니다.

1차년 - 내달로, 노래해요, 빌바라도, 독일어, 사브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토어가,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기타
각국어 -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제한 - 아이슬란드어.

에단지 편지

 마음에 감동을 받음

저는 12년 전에 교회를 찾았으며
신교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하신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후 1년 이상을
중용으로 별명에 입혀있는 동안 저는
살림술 새 사전에 비해(일본어)와
돌연 경에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별 생애에 나온 이기들을 통해
이를 받았으며 병을 향한 시하며 기간
동안에 신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병이 완화되었으며, 건강이
회복된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감동을 글리한 해류에서
감사드립니다.

헤이요 나카야모

기계요 와드, 동경 스케이크

일본 동경

예언자들의 사전

리아호나(포르투갈어)를 풀로한
신기와 기사를 향하는 주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는 언제나 영감을

저회 가족은 가정의 밤 시간에
리아호나에 있는 이들을 활용합니다.

파리의 교회 대관점님들의 사전을 더

많이 설교시킬 부담드립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 이들이는 교회의

활용하신 지도자님들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으며, 그들들의 생활 이야기를

이러서 감동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타일로 찰메이스

사랑의 기도 스테이크

브라질 사랑의 기도

편집 노트

예수여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가지합니다. 성과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부부를 참치 사전 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편지에 감사하며

と言い는 보장받으시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사를 보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내실 주 - 서울 성동구 서산동
22호 성도의 벽 답장자 받기 전
예수께서 걸으신 길
토마스 에스 폰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12
월 어느 추운 날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던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장례식에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슬트레이크의 테비내름에 모였습니다. 예언자로서
주시던 말씀과 강력한 지도력과 현신적인 봉사들 보이신 리
대관장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함을 누리게 되도록 소망을 가지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다음날 슬트레이크 성전의 빈 위의 성스러운 방에서 그분의 후계자가
선택되어 지지되었고 성스러운 직분에 성별되었습니다. 일에 지칠 준
모르고, 항상 결손하며, 영갑에 찬 간증을 지니고 계시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는 리 대관장님이 결정하신 길을 계속 따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 분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주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에즈라 테포트 벤슨 대관장님이 권세를 가지고 그와 똑같은
권고를 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잃들려 경배하라" 이 세상 왕국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이타야 물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4 : 8~10 참조)

사탄이 다시 "만일 내게 잃들려 경배하라" 이렇게 주려고 하자 구세주께서는 "사이탄아 물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4 : 8~10 참조)

예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켓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만일 여자가의 끈이든 이 길을 내게서 물기시오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하고 여자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아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맘에 뒤리지는 피개발같이 되리라"(누가복음 22 : 42, 44).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으신 고통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방이 이렇게 의죄되었습니다. "...내가 고통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 : 28, 30)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권세를 오용하기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지 않기 때문에 실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두 유혹의 길도 걷게 될 것입니다. "여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있으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나요..."(고리와 성약 29 : 39)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의 길도 걷게 될 것입니다. 쉽게 하느님 나라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도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후에 하느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종문구 구세주 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승리를 얻기로 주신 길을 걷게 되는 반면에 영원한 기쁨을 얻어 주는 길도 걷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 (히브리서 5 : 8) 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성익을 베푼시던 예수님의 생애는 성을 비춰 주는 탐조등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젊짜마에의 다리에 힘을 주셨으며, 장남에게 향명을 주셨고, 귀미리를 들게 하셨고, 숙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네 이웃을...사랑하라"(누가복음 10:27)고 하셨으며, 간절하던 억지의 여인이론도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 사랑에 가득한 이해심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텈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자신을 발견시키고 완전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가르치셨으며, 우리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의 이웃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해야 하는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누가복음 11:2)

둘째는 켈세바에에서의 기도입니다. "...내 위대로 마을고 아버지의 위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세세는 십자가에 달려서 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가"(누가복음 23:34)

우리는 기도의 길을 걸음으로써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신 이러한 길을 걸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자와 선지자와 계시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겪으신 길이므로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수년전 스펜서 더블리 캐롤 장로님을 처음 뵐 때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캐롤 장로님은 설교사도 전문회의 일원이셨으며 저는 슬로베니카사에서 젊은 감독으로 복사하고 있었습니. 어느날 아침 전화회 솔테로 수화기를 들자 다음과 같은 옹성이 들려 왔습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리 캐롤 장로입니다. 특별히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감독님의 외에서 5번지 옆 큰 건물 뒤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작은 집에 살고 있는 회인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은 나바호 인디언인 마가렛트 버드 자매인데, 감독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그녀를 찾아 보시고 우정의 손길을 뻗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아무래도 놀로없는 잔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에 올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렛트 버드 자매는 생각을 되찾았습니다.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속에 쌓여있던 앙금인이 교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인간애가 널치는 이 짜증 드라마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한 결음 향상된 모습을 한계 되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목자가 아픈 아픔 마리의 양을 두고 있은 하나의 감진 영혼을 찾아 간 사도였습니다. 스펙서 더블류 김복 대본장님은 예수께서 결오신 길을 겪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결오신 길을 겪을 때 우리 모두 그의 복잡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세주께서 내린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때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소가에서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름도 없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오신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마저 그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그분은 오늘날 섭취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기십니다. 그분은 명령을 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현명한 자한 어리석은 자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몸소 수고하시고 약과 맞서 싸우시며 고난을 겪으시는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베타렌램에서 테어난 아거나 목수의 아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외한 교사 이상의 품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상을 세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찬거나 군대를 이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왕관을 쓸지거나 홀을 드셨거나 왕의 옷을 입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없는 용기와 무한한 인내, 한없는 용기를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습관, 의견, 야심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의 기질과
우리도 예수님이처럼 기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의 권세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성격과 인품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신앙 사도인 베드로로 더 잘 알려진 어부였던 시몬을 생각해 보시다. 의심이 많고 성격이 성급하며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 가해 받은 빌과 비통에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인가 “...그에게 짓을 베풀며 그의 양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하수들은 손바닥으로 친”(마가복음 14:65) 받아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으며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명령했던 베드로는 여다에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만도 대제사장의 짓 앞에 끌려나와서 하수들과 함께 이기 불을 쳐댔다”(마가복음 14:54) 베드로가 구제를 세 번 부인하여 예수님의 애인이 성취한 날이 바로 그날 밝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속에서 은락 수모로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점점 저키시다가 베드로를 쳐 보셨습니다.

아는 역사가 베드로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베드로는 더이상의 위험을 몹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새벽이 밝기까지 나를 바라며 밤을 맞았다. 가슴이 흔들며 드문 회고에 잠든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그 순간 그의 과거의 삶, 수척, 약점, 자아가 슬픔과 함께 죽어 갔고 그는 새롭고 고성한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었다.”(후대백과 데블무 파라, 예수의 생애 오래 im 포틀랜드 : 파운틴 출판사, 1994 64쪽)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구제주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바나그(요한복음 11:43)말하고 계십니다. 의심에서 비롯되는 낙담에서 나옵시오.

죄의 슬픔에서 나옵시오. 불신앙이라는 사망에서 나옵시오. 새로운 삶으로 나옵시오. 나옵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결의셨던 길을 걸으면서 구제주께서 주신 간증을 기억합시다. “보라 나는 예수님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님 그리스도라. ...나는 세상의 밤이오 생명이야...”(니파이삼서 11:10-11)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오.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이,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요한과 성경 110:4)

이상의 간증에 저의 것을 다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1.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분의 영을 마음에 갇히며 그분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생명이 자신에게 살아난 수 있다.

2.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참된 사랑을 지닐 수 있다.

3. 우리는 성령과 유희하고 고통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4.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너희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림책 간중
말리 소우번총

라

오스의 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성장한 저는 소년 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나 기독교에 관해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소요와 민족사로 인해 가족들이 교국을 떠나 결국은 미국에 정착함에 따라, 저는 이곳에서 맏일정도 선교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친교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6월에 친례를 받았습니다.

1990년 11월 26일 일요일, 저는 매사추세츠주의 릴필드에 있는 아시아인 지부에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었습니다. 제 앞자리에는 열 한 살의 소녀와 여섯 살의 소녀의 남동생이 앉아있었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그들을 보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저를 보며 "왜 예수님이 이레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셔서 그레.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셨지."

저는 한 어린이의 책과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민음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소녀가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녀에게 읽어주시니 그 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릎 alm 이기도하고 게시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읽어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설명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맞은 그림을 보고 미안해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림을 보면 매우 즐거워 했습니다.

저는 책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곰들이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자 그 아이들은 마치 학교에서 발표하려고 할 때처럼 얼른 손을 들고 서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어린 소녀는 저를 보고 "그 이야기가 참신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잃림없는 사실이란다.

저는 바다를 그는 동안에 그 이야기가 잃림없는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잠재되다고 잊고 있던 것들에 대해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성신이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느낄로 느낄 수 있었던 느낌, 평화로움, 사랑 같은 것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위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에 관한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인생을 추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리보며 이러한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결코 만족하지 않고 꾸밀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브리갈 영은 후자인 경우였다. 31세의 나이에 병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온 그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였으며 그 가능성을 극대 확신했다. 그에게는 그 왕국이 결코 환상적인 꿈이 아니였으며 가능성 있는 실제로 새로운 생활 양식이자 새로운 사회 형태였다.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심에 복음선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예레미야 20:9)"도록 그는 이러한 이상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 언약을 요청하는 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힘들어하며 희망이 사라진다. 나는 삶의 원리는 위해 모든 것이 예비일 때까지 요구가 시작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계속 추진한 선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성도의 사업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유일한 사업입니다." (결교집, 3:51)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사업"은 브리갈 영의 목표와 인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주었다.

브리갈 영처럼 그러한 목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그 목적이 든든히, 그 목적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 많은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서 그는 뉴욕주 벤도에서 하던 목수 생활을 그만 두고 그 명의 연대선에 있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계곡에 자신의 집과 교회 본부를 세울 때까지 한 번도 정직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1832년 이른 봄, 눈이 내리는 가운데 침해받은 브리갈 영은 몸가지에 문을 잠아두고 마르기도 전에 3킬로미터 정도 멀어진 그의 집에서 장로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기도 전에 그 해는 그의 첫번째 아내가 사망했으며, 그가 여전히 요셉 스키머를 처음 만난 중요한 해였다. 브리갈 영은 다시 눈 내리는 계절을 이변에는 자신이 새로 찾은 인생관을 캐나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다. 12월 어느 추운 겨울 날, 브리갈 영과 그의 형제 요셉은 캐나다 상부에 위치한 킹스턴을 항해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이 두 명은 길은 장로를 무릎까지 눈에 떴는 데가 눈박이에는 진흙이 두껍게 깔린 길을 400킬로미터 이상 걸어가야 했다. 아래에는 진흙이 깔린 눈밭 길을 해치고 걸어본 사람만이 이 길은 선교사가 겪었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거의 10킬로미터는 빙판 길을 걸어야 했으며, 엎드 뒤개가 하면서 그들이 신은 신발 안으로 "절반 깊이"까지 물이 스며 들어왔다.

두 달 동안 그 선교사들은 그

위: 브리갈 영의 이 산은 1851년, 그의 50주년 생일을 맞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의 한 장의 사진은 그가 75세 되던 1876년도에 촬영되었다.
위 : 브리감의 옷장 일부. 그가 영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지, 실크 모자, 양가죽 구두 및 지팡이. 오른쪽 : 요셉 스미스는 브리감이 성도들을 미주리주 폭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1,600킬로미터를 행진하다 고레리에 걸린 병자들을 돌보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봉사했다고 기록했다.

위 : 브리감의 가구 선반. 원쪽 : 브리감이 짓는 데 도움을 준 뉴욕주 슈거힐에 있는 한 농가의 장식용 대문. 청문은 통해서 브리감 영이 기술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 노력한 결과 45명에게 철학을 주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교 사업의 브리간 영에게 싫지 않았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인어 구사가 서투르다"고 생각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할 말이 따로 있지 않을 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력이 강했으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성교집, 5:97)

세월이 흘러 또 한번 선교 사업을 다니던 후 브리간 영은 마침내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주 키톨랜드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에런자 요셉 스미스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가 두 번째 선교 사업 때 노력한 결과 22명이 더 왕국에 들어왔으며, 그는 후에 성도들을 서로로 인도하듯 그들을 키톨랜드로 인도하였다. 오하이오주 북부의 조용한 마을인 키톨랜드에 정착한 브리간 영은 에런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마을이 정착한 자가 거하는 곳인 시온에 관해 배우게 되었다.

브리간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한 큰 희생을 시온 건설의 행군 대열에서 요셉 스미스를 동반했던 1834년에 다시 한번 처참게 되었다.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이 폭력에 의해 집에서 죽거나 도망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키톨랜드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호소가 전해졌으며요셉과 그 밖의 205명은 도움을 구하는 이 간정에 응답했다. 성도를 밖하리는 자들과 맞서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1,600킬로미터 떨어진 대륙 반대편에서 죽음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조언한 것을 알고 있었다.

브리간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장거리 도보 여행에 익숙하였지만 이와 같은 행진은 처음이었다. 영 환경은 하루가 전날 사절 밤에서 피하기 너무 힘들어 몇 번 동안 걷고 또 걸을 것에 대해 말했지만 그간 선교 사업의 단순 요류의 더위 아래에 대형 규모는 이 행진의 고동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행진은 계절차에 따라 도로의 외면에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화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마침내 우편의 콜레라가 앞서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나 감기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부터 높이 설정된 베이데리카에서의 콜레라가 크게 번연하였으며 그 중앙은 잘 알려졌는데 적 사례를 하고 간접적으로 구축하여 고농산 경련을 일으키는 대가 투수증을 일으켜 얼굴이 창백해지고 수체해지며, 손가락이 차갑고。

거무스름해지고 수축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속출하였으며 때때로 이 콜레라로 걸린 사람들이 도가해 맑은 눈이 줄어들어 쓰러지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선 일부 회원들은 도망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브리간 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요셉 스미스는 브리간의 영상을 돌보고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밀린 사라리라고 기록했다.

세월이 흘러서 지나치게 오래되지 않아 브리간 영은 1835년에 조직적, 현대의 첫 번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새로운 부름으로 인해 브리간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책임이 무겁게 늘어나갔다. 그러나 요셉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여 만들며 인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겠다는 그의 인생 목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브리간 영이 사망일 당시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고 헌신했는가를 알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1839년에 시작되었다.

첫번째 사건은 2월에 발생했다. 당시 요셉 스미스는 라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브리간 영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교회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문제는 성도들을 미주리주에서 일리노이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주할 준비를 잘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으며, 성금이 떨어지며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려는 유혹도 컸다. 그러나 브리간 영이 보기에 그것은 하느님의 참된 성도로서 택될 수 있는 합당한 행동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사라사라 동정 및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밝우지 못하면 분명히 사회는
지역에서 노력한 결과 45명에게 청해를 주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incl 선교 사업이 브리간 영에게 쉬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는 누구보다도 어떤 구사가 서투르다"고 생각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할 말이 편지로 도달한 것도 메울 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력이 강했으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교집, 5:97)

세월이 흘러 또 한번 선교 사업을 다녀온 후 브리간 영은 마침내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주 킹스턴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예수회 요셉 스미스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가 두번째 선교 사업 때 노력을 결고 20명이 더 왕국에 들어왔으며, 그는 후에 성도들을 서북으로 인도하듯 그들을 킹스턴으로 인도하도록 하였다. 오하이오 주 북부의 조용한 마을인 킹스턴에 정착한 브리간 영은 예수회 요셉 스미스에게서 마을이 정결한 자가 거는 곳인 시온에 관해 배우게 되었다.

브리간 영은 그의 신앙에 대한 큰 화를 시온 선교의 행군 대열에서 요청스미스를 동반했던 1834년에 다시 한번 치료되게 되었다. 미리 주에 있는 성도들이 폭도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킹스턴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호소가 전해졌으며 요청스미스의 205명은 도움을 구하는 이 간청에 응답했다.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과 맞서기로 한다. 그들은 1,600킬로미터 떨어진 대륙 반대편에서 조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리간 영은 설산 시대의 사람들은 장거리 도보 여행에 익숙하였지만 이와 같은 행진은 처음이었다. 영 대관찰은 과거 그가 선교사 시절 벌어 빠져 나도록 여러 달 동안 겪고 또 겪은 것에 관해 말했지만 이런 선교 사업조사 초여름의 더위 아래 매일 계속되는 이 행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극도로 피곤에 지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대는 사랑도 생겨게 되었다. 마침내 무서운 콜레라가 몰래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자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생겨게 되었다. 그때부터 2년전 북아메리카에서는 콜레라가 크게 번역하였으며 그 중상은 잘 알려졌는데 즉 심장을 하고 간헐적으로 구토하며 피로로 인해 경련을 일으키는 데다 탈수증을 일으키 일공이 창백해지고 수채색이 사라지고 가무스름해지고 수축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니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자가 축출되었으며 때때로 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도가니 맞은 듯이 충격하여 쓰러지기도 했다. 시온 선교의 일부 회원들은 도망가라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브리간 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요청스미스는 브리간 영이 병을 들보고 죽은 자들을 장사지어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일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다.

시온 선교에서 지낸 영 오래지 않아 브리간 영은 1835년에 조직된, 현재의 첫번째 심사제도 정관회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새로운 부름으로 인해 브리간 영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책임이 무겁게 늘어남을 느꼈다. 그러나 요청스미스는 신속한 일을 계속하며 늘 그의 오감을 준비하게 하겠다는 그의 인생 목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브리간 영이 사도임 당시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중임없이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1839년에 시작되었다.

첫번째 사건은 2월에 발생했다. 당시 요청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브리간 영이 심사제도 정관회 회장으로서 교회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문제는 성도들을 미리주에서 일리노이주로 이주시켜야만 했다. 이주할 준비를 잘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으며, 성급히 나가려고 하는 곤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려는 유혹도 컸다. 그러나 브리간 영은 보기에는 그는 하나님이 친하던 성도로서 위할 수 있는 합당한 행동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사람과 동정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배우지 못하면 분명히 사회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브리감 영은 생각했다.
따라서 한 모임이 소집되어 서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에 서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먹어갔다는 것이었다. 브리감 영과 그의 가족은 하버스 김 복가족과 함께(김복 장로는 미주리주에 남아 있었다.) 추운 2월에 포장마차를 끌고 일리노이주를 향해 나아갔다. 이것은 물론의 모든 이주 경영 중 가장 기요한 행진 가운데 하나였다.

얼어 붐은 미주리 평원을 32킬로미터 정도 나아간 후, 브리감은 밤중에 그의 아내와 다섯 자녀들이 설 잔치 거처를 마련해 주고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빌립스 공주리는 성도들을 마치에 대우하고 집에 들어 그의 가족에게 돌아왔다. 이 전의 방식으로 그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여행한 따라서 여전히 빌립스 공주리는 항상된 것이다. 다만 그들은 결혼 생활 지속된 곳에서 한

가난한 형제들을 택하고 오는 데 쓰이도록 소나 막이 제공되었습니다. 가족을 제공한 사람 중에는 헨즈빌 학살 사건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워렌스 머피주 펜대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 자선 사업에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경험을 통해 브리감 영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함께 단합될 수 있으며,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기반을 둔 기독교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었다.

같은 해에 있었던 두번 째 사건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브리감 영의 큰은 의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1839년 9월부터 1840년 2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그의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관심은 그가 뉴욕으로 여행할 시기로 모아진다. 심야도들이 특별한 선교 사업을 위해 퇴아야 할 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브리감 영은 주위의 많은 형제들처럼 페러리아로 보이는 범죄로 경찰 왔었다. 불 전쟁이 일어난 곳이 없지만 그는 거주 침대에서 일어나 아오키와 합동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열심히 업었다. 그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요란에 있는 여러들을 캐내 몸에 들었다. 그의 자녀가 모두 밑에 중이 없어 누워 있었고 그의 아내도 동이 검리 난지 열흘된 아가가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미시시파강이 겨우 150미터 거리에 있었으나 브리감은 그 강둑까지도 걸을 수 없었다. 한 이웃 사람이 마차를 꼭고 있기 때문에 영 대관람은 그 안으로 가어들어 갔다. 누군가 강에서 그를 마주나와 강을 건너 후 이스라엘 바로우가 그를 맡어 태워 나무에 있는 허브 시 림을 침으로 펴려고 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쓰리진 체 4일 동안 일이나지 못했다.

마침내 낮시간이 되었으며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동쪽으로 이동했다. 브리감 영은 마차 뒤에 탔다. 감기가 걸려서 불편함을 느끼던 사람은 그가 병든 모습으로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 사이를 횡단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잘 이해할 것이다. 

그동안, 브리감은 마침내 뉴욕시에 진강한 모습으로 도착했으나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나뭇가지를 다가 그는 넘어져서 쇠로 철 코리에 부딪혀 원쪽 어깨 뼈가 탈출되었다. 주위에 있던 두 형제가 그를 감안에 강하게 밀어 빠진 후 필리 프로보호 브리감의 코루기에 받은 나무 뼈가 다쳤다. 이 시련은 참기 힘든 것이었지만 영장로는 오른쪽으로 빠고 교정도 도왔으며, 그 직후 의사를 빼고 메칠 동안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역경에 이런 사람들들은 낙관하여 일직강치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브리감 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관계된

성도의 밤 1993년 2월호 14
위: 브리건이 평원을 횡단할 때 사용했던 어깨 망토와 망원경.

원쪽: 펜에서 흰색한 브리건은 솔트레이크 계곡을 윌포드 우드럽의 마차 탑텐에서 처음 보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충분하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위: 브리건이 선물로 받은 금 지팡이의 조각된 머릿부분. 오른쪽: 브리건의 설계에 따라 제작된 4면 책상. 그것은 종종 그와 그의 보좌들이 사용했다.
위: 워클리엄 워드가 그린 에 솔트레이크 성전의 그림은 20년 이상 영 대관장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다. 오른쪽: 영 대관장이 살았으며 그의 사무실이 있었던 비하이브 허우스.

일이라면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바를 탔으며 영국으로 가는 도중 계속 배 멀미를 했다. 마침내 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너무나 수적한 모습이어서 그의 사혼인 워클리엄 워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영국에서 여러 날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한 후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희생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온 영장료는 다음과 같은 정년의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형제 브리갈 영이여, 진심으로 이같이 주께서 그에게 이르노라. 너희의 의정이여, 이재는 지난 날과 같이 네 가족을 떠나 가기를 너희 요구하지 아니하노, 네 변을 받아들였음이라.

"나는 너희의 이름을 위하여 여행하는 동안 함께 일하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음을 보아왔노라.

그리므로 나는 내게 말하노, 나의 말을 널리 전파하며 이제부터는 이후 언제까지나 영원히 네 가족을 특별히 돌보지이다. 아멘."(교리와 성약 126:1-3)

이렇게 브리갈 영은 예언자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 브리갈 영은 성도들을 그래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했다. 1847년, 46세의 나이에 그는 교회의 제2대 대관장으로 지지받았다. 그의 지도력 하에 난민성도들은 사막을 장마가 만나게 하여 인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난은 하야를 개간하고, 마을과 도시를 세웠으며, 집과 농장과 성전을 짓고, 햇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수확했으며, 공장과 장가 및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쳤으며 선교사들을 만나던 곳으로 보내었다.

한편 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브리갈 영은 하나님의 왕국인 이 시온을 지상에 세우기 위해 글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제단에 기꺼이 바쳤다. 인생에서 그 목표 외에는 모두 부자적인 것이었으며 그는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었다. 이러한 태도로 저منذ으로 그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이상적인 사회를 발견시키는 데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일에 선택하실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은 완전한 것이었다. 주님의 예언자로서 그는 만년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시온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나 예언자 그의 백성들이 왜서 시온을 세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시온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꾸며 점을 짓고 농장들을 돌보고 포도밭과 과수원을 가꾸고 옥실을 만들고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생산하며,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지상에 시온을 세우며 그것을 모든 디아몬으로부터 경계할 것입니다.

부한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
브리감 영의 생애, 1801~1877

연도     나이     사전

1801년  ---   6월 1일 : 버몬트주 위팅검에서 출생
1815년  14세   모친 병逝 : 생계비를 벌기 시작하여 마침내 독자가 됨.
1824년  23세   10월 5일 : 미리엄 워즈와 결혼
1822년  31세   청배 danych : 장로로 성인이 됨. 아내 사망. 요셉 스미스를
1834년  33세   만남. 미국과 캐나다에서 단기간 선교 사업을 수행함.
1835년  34세   2월 15일 : 메리 엔 매헤일과 결혼.
1839~41년 38~40세   5~6월 : 시온 진영의 행진에 대장으로 활동함.
1844년  43세   2월 14일 : 현대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1846~47년 45~46세   성도들에게 솔테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함.
1847년  46세   1월 14일 : 교회의 성약 136편의 말씀을 읽음.
1860년  49세   7월 24일 : 처음 모집한 성도들과 함께 솔테레이크 계곡에
1853년  52세   들어감.
1868년  57세   12월 27일 : 교회 대관정으로 지지받음.
1867년  66세   6월 15일 : 헤타 지역 주지사가 됨.
1869년  68세   4월 6일 : 솔테레이크 성전의 창설을 놓음.
1877년  76세   6월 11일 : 주지사로서 8년 임기 후 퇴임함.
1876년  75세   10월 6일 : 새로 지은 솔테레이크 대바인플러에서 첫 번째
1767년  76세   연차 대회가 개최됨.

화나하면 우리 아침이 되어 특이한 경험이 되어 그들이 왜 보고
우리 모범을 배우기를 기대했다.

그의 끈은 여러 명에서 아직도

생계비를 벌기 시작하여 마침내 독자가 됨.

모친 병逝 : 생계비를 벌기 시작하여 마침내 독자가 됨.

처음 모집한 성도들과 함께 솔테레이크 계곡에

 들어감.

새로 지은 솔테레이크 대바인플러에서 첫 번째

연차 대회가 개최됨.

현대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성도들에게 솔테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함.

처음 모집한 성도들과 함께 솔테레이크 계곡에

들어감.

새로 지은 솔테레이크 대바인플러에서 첫 번째

연차 대회가 개최됨.

행진에 대장으로 활동함.

성도들에게 솔테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함.

처음 모집한 성도들과 함께 솔테레이크 계곡에

들어감.

새로 지은 솔테레이크 대바인플러에서 첫 번째

연차 대회가 개최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부족한 자료가 부족함.
가족앨범

45년 어느 봄날 아침에
교회의 삶이사도중 한
사람인 윌라드 리차즈와
그의 아내 제네타와 그들의 아들
허비 존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는 루시언
포스터 사진관으로 갔다.

그 당시 사진 활영은 새로운
발명이었으므로 사진관에 갔다는
것은 리차즈 가족에게 매우 즐거운
모험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위에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נק달 후 제네타가 감자가
사망했으므로 윌라드와 허비 존에게
나중에 매우 소중한 것이 되었다.

150여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에 소장된
사진 중 일부로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리차즈 가족의 모습처럼, 모든
사진 뒤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1989년도 사진은 괴태말라의 외판
산간 지역에 사는 말입성도들이
손으로 만든 막돌로 그들의 예배당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예배당은 그들의 신앙과 헌신과 봉사
및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려나온
결실이다.

사진에는 이와 같이 많은 사연들,
즉 과거와 현재의 말입성도들의 삶의
특별한 순간들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한 예로서 실린 사진들은
작은 것이지만 복음이 우리를
전세계에 걸쳐 같은 교회 회원이며
한 가족으로서 함께 단합시켜 주는
공통된 경험임을 보여준다.
위: 성찬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이 1975년도 사진은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
외도에서 찍은 것이지만 이것은 전세계
어느 외도나 지부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원쪽: 1990년 프랑스 세르기에서
전도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인 엘버텔리
장로와 채치 장로.

위: 한 아르메니아인 개종자가 1923년
4월 6일 시리아 알레포의 임시
침례당에서 침례받고 있다. 사진
원본의 뒷면에는 그날 6명이
침례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아래: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는 호수 같은 곳이
종종 “침례당”이 된다. 이것은 1900년의
이 뉴질랜드 개종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위: 1990년 영국 런던에 사는 에녹 코이가 아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있다. 코이 형제는 이전에 가나에서 추장이었다.

위: 전세계 밖일성도들의 구세주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이 가족이 이웃에서 미망인을 방문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나타난다.
아래: 교회에서 첫번째 주일학교는 1849년에 조직되었다. 50년후인 1899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제2차드의 다국어 반에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및 미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반원들이 모였다.
오른쪽: 1990년, 타티어나 투루티아 자매는 그 당시 소련의 비보르그에서 첫번째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위: 나이제리아 아크와 이봉의 에켓 지부 회원들. 이 사진을 찍은 1985년 당시 지부의 30명 회원들은 건물을 세내어 모임을 갖고 있었다. 예배는 에픽어로 진행되었다.
아래: 교회에서 훈히 봄 수 있는 모습으로 한 아버지와 다른 신권 지도자들이 유아 축복을 하고 있다. □
방문 교육 메시지

주님을 매일 찾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축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그분의 사랑에 친 인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나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염마서에서 염마레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의 인도하시는 힘을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염마레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 너희들이 허락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너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자…

스스로 결손하며 심지 말고 주께 기도하라.

“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억배를 위해 기도하고, “ 너희가 집에 가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씨의 권세를 막아 주시도록 기도하라…

”서약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극단을 위해 기도하며, “ 너희 들에 있는 가족이 번성하도록 기도하라.

“몇만 아니라 너희 폭발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신으로 기도하라.”(암마서 34 : 17, 19~22, 24~26)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영적으로 걸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시며 그 말씀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생활을 인도하신다는 어떤 개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문을 열음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은혜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요한계서록 3 : 20) 이 성구에 묘사된 문을 그린 유명한 그림을 보면 묘고리가 우리가 있는 쪽에만 결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을만 준비를 하시고 죽지지만 우리에게 문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강요하시는 것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실제로 문을 열어서 우리 생활에 신앙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말지니,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교리와 성약 8 : 10)

주님은 우리 일상 생활을 살펴보시며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결을 잃고 누워서 하는 소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검증해 낫추고 기도하되 그분의 응답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결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생활에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힘을 얻게 되는가?
웃음뿐 미소 뒤에는 피해자의 무서운 짐승 두려움과 죄책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여러분이든지 또는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희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치유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엔드리아를 만나면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었으며 우호적이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름 아기 비극적인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많이 울였으며 편주를 친점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멸리하고 누구하고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며 학교를 비롯하여 어느 곳에서도 자신감 없이 행동했다. 엔드리아는 여럿을 때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다.
“저는 엽창한 최를 걸렸다고 생각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 일이 너무 역겨운 일이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 혼오스럽고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이해하는 많은 감독님이 저에게 그런 저의 잘못이 아니며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므로 제가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엔드리아는 전문적이고 영적인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왔으며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님

불행하게도 그것은 엔드리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많은 수의 성폭행 사건이 매일 보도되고 있으며, 많은이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사회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족, 종교, 직업, 소득 수준 및 교육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일은 말없듯도 가족에게도 알려나가는가? 교회내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사실이다. 교회 본부의 지도자들은 성폭행을 당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는다.

정확히 말해 성폭행이란 무엇인가? 성폭행에 대해 정의를 내려 놓은 것은 보인, “한 여인이가 여린이나 또는 신분 관계나 혼 동 자신을 거바할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여인이로부터 받는 성적인 자극을 주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여인이

학대 : 종무 지도자 자질[교회 소책자]. 1989년, 2주)

“어린이 학대”는 아마도 우리가 항상 존재해야 할 것을 입니다.”라고 고든 피플리 부대관장은 말씀하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처럼 관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욱 많이 발견되는 이런 급격한 악에 맞서 대항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은 기쁘게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아이를 학대하면 그것은 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근본 정경은 법인 사람을 지니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회원 자격도 지니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 대한 대심판의 날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1985년 4월 연차 대회)

일부 교회 회원들의 편지는 성폭행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말해준다. 15세의 린다*는 이렇게 썼다. “제가 놀라운 아기의 부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천까지 치료 대다 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아저씨가
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올곧이
치한 걸 알았습니다. 점으로 올 때
그는 저를 내려놓고 해했습니다.
제가 저지했지만 그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6세의 터버스”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섯 살이었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빠,
언니들과 함께 할아버지댁에서 그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했으며 그분은 세계 배개를
가져와서 무릎에 닿고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5세의 터버스는
피해자임을 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나, 제가 어릴 때
저를 돌보던 누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그 누나가 무슨 것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몇년 후
저는 그것을 깨닫고 매우
억격되었습니다.

이런 “억격” 느낄 느낌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게 된다. 이것을 다루는 일이
너무나 가까운 과정중
하나이다.

죄 있음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 관한 다음
정책을 수립했다. “강간 또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이고 심정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불편함
죄의식을 가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역원들은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위해 해야 하며, 그와
피해자들에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화해된 사람으로서 너무 죄도
없으므로 죄의식을 가지서는
안된다고 신서천 주교 대인
관계에서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상황에 주도적인
악행을 했다라도 성적인 관계에
기꺼이 동의한 성인이라면 그 행동에
부분적인 책임은 가지 않아 합니다.
의식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유발한
사람도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피해자일 뿐
전혀 죄가 없습니다.

“성폭행당한 어린 화장신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인의 행동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책임지기 전에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린이의 명백한
동의에 따라 그런 행동이
저질리겠더라도 폭행자가 어린
화장신에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에는
그런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어린이의 도덕적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총판리 역원, 지역
대표 및 기타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시한, 1985년 2월 7일)

도움을 받음

성폭행 당한 사람들들은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며, 반드시
도움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즉시 폐소에 가깝게
지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친척, 상담가, 교사, 감독 등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아무도 그 사건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 것이다.

성폭행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무엇쪽 가해자는 피해자나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만일 사실이
알려지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혐 fark한다. 그런 혐 fark은 잘못된
것이며 누군가에게 그것을 빌리
알려야 한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못한 것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나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리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복잡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들은 종종 그 방면을
고발하면 가족 관계에 즐가거나
가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기억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만일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면 정부 기관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점에서 적시킬 것이다.
또한 우세에 있는 전문 상담가가
가족을 도와 개인 및 가족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의
목적은 가족 관계를 해치는데
아니나 더욱 단단하게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피해자는 감독이나
학교 상담가 또는 믿을 만한
성인이나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러한 상담 기법을 전문
인사의 가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비가
문제되어서는 안된다.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계정 보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전문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다.

피해자는 또한 그 방면에
알려지면 자기가 가족이 교회나에서
활동하기 어렵고 폐관도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측우려한다. 그러나
가해자에게는 조치가 취해져서 그가
회하게 하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회 선도의 목적은 (1)범죄자의 영혼을 구하고 (2)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3)교회의...존엄성을...지키기 위한 것이다.”(교회 지침서, 1989년 3월, 10-1쪽)

남자인 경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사회에서는 종종 남자인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그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그들은 자신의 남성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한다.

피해자가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그를 무서운 요리师법과 인정하기 힘든 것이다. 그래도, 많은 피해자들은 그것을 고발하기보다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며 자기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들은 또한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받기에 합당치 못한 불결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라도 느낄지도 모른다. 일부 피해자들은 그런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그들에게 그런 관계는 정상적이며 자연스런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폭행을 고발하는 데 따르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고발되어야 한다. 그 사례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이들이 그 문제를 제치려는 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폭행과 관련된 경험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범죄, 체포한 동서, 혼을, 기괴한, 친구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 자신감 상실 또는 장애 결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자녀에게까지 그러한 범죄가 영향될 수 있다.

“개별 동안 저는 지역의 어느 모임에서 활동했는데 그 모임의 지도자가 심해 소녀들을 폭행했어요.”라고 사료는 말한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그가 한 것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모두 적혀 있었어요. 삼남을 통해 저는 그런 것을 제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일단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는 그런 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학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 중 한 단계에 오레 미루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종종 그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첫번째 반응은 충격이다. 이것은 발생한 충격적인 상황이 너무 급격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쉬운으로 감각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 다음엔 급부 반응이 온다.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는 없어. 난 아냐. 우려 가족도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치 없는 인간이야.”

만일 피해자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건 급박한 일이었어. 그러나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될 것까지는 없어.” 문제가 최종 해결책인 적응이 마지막 단계이다. 그 사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가지고 여기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그 일은 파괴의 일부가 되며 더 이상 피해자의 생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을 다 가치면서 앤드리어는 더욱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녀처럼 성폭행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그들이 피해당하지 않은 권리가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에게 아무 짓이 없으며 여전히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봉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성스런 대지에 서서

그레고리 엔시나 빌리코프

칠레의 산타고고 성전 정원에
섰을 때 나는 어린 소년 시절에 바로
이 밤에 있던 카톨릭 학교에 다녔던
일이 생각났다. 1970년 봄에 우리
신부님은 우리 학교가 독립 교회에
발리기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칠레
사람들은 친구 교회가 유일한
종교라고 생각하지요.”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물론이죠. 또 다른 종교가
있나요?”라고 생각한다.

신부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보고서를 쓰길
바랍니다.”

말일성도 선교사 사무실은 우리
집에서 단지 두 걸음에
있었으므로 나는 학교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그곳으로 갔다. 집에
들어 나는 교회에 관해 쓰여진 예쁜
소책자 몇 권과 독문경을 보았다. 그
책 1면에는 모로나이의 특별한
약속이 들어 있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후에 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만해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혀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짐승을 얻지를,” (모로나이서
10: 4–5)

이 약속을 잃었을 때, 나는 이
말씀이 참되며 독문경이 참되다는
영적인 증거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15살 소년으로 아직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느낌에 따른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관심은
꺼졌을뿐 본문에 관한 보고서를 내
후 반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다른 종교반에서 토론 모임을
한 후에 나는 신학의 본질에 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영감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세 분의 각기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한 가지 같은 목적을
갖고 개심을 이행하게 되었다. 이
소중한 새로운 지식은 나중에 내가
주님의 찬인 교회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러 나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닐 때 우리
교회를 잃게 되었다. 학교
기숙사에서 나보다 아래층에 살던
랜디는 나는 독문경을 한 권
주었다. 이 책은 내 방 한 구석에
그대로 오랫동안 놓여져 있었다.
랜디와 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외전이 달랐지만 그가 나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내용이 참있다고 증거하는
영의 추사임을 느꼈다.

성찬절을 맞이하여 나는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 비행기 안에서 잠을
취돌을 가방에 깔끔하게 시작했다.
책을 가방에 넣다가 나는
독문경을 보고서 그것을 제일 나중에
들을 다 읽을 것을 잊은 다음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나는 제일
나중에 잡아먹었던 독문경을 제일
먼저 꺼내었으며 감작시 그것을
읽어보았다는 큰 육구를 느꼈다.
독문경을 빼놓고 다 읽을 때 4일이
걸렸다. 나는 그것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참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알게 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대학교로
돌아온 후 즉시 랜디에게 내가
독문경의 말씀을 믿으며 친해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기뻐했으며, 장로들에게 연락하여
곧바로 나는 친해받았다.

내가 소년 시절 카톨릭 종교반에
다니던 나날, 장례 어느 날 바로 그
망에서 주님의 별자리 칠레 산타고고
성전에 참석하게 될 것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
신앙의 섬 피지

"하늘의 내려준 선물"이라는 표현은 피지의 이름다움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곳 회원들에게 영적인 이름다움을 더해 주어 이 낙원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샐린 미크 손더스

"하나님께서는 가장 즐거운 날에 이 피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전에 태평양 지역 회장으로 봉사한 글렌 엘리드 장로는 말한다. 여러분도 차를 타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비치 레부섬을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달려본다면 이 말에 동감하게 될 것이다. 화산 봉우리들이 열대림과 잘 정돈된 사탕수수 농장 위로 솟아 있으며, 밖으로는 야자나무들과 고운 모래 해변이 열은 침색의 바다가 반짝거리며 만까지 이어져 있다. 그러나 이 낙원에서의 생활이 항상 단순하고 매력적인 것만은 아니다. 피지가 지난 자연의 아름다움 뒤에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이 있으며, 이곳 사람들은 자국의 발전과 성장에서 오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까지도 싸롭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피지 국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지 수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아카니시 로시와 투포우투아 바리블라라, 약 7,000 명의 말일성도들이 이 섬나라에 살고 있다.
주요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북쪽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이들이 사령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파지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약 1,77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며 가족이 없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백 개 정도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하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그 중 13개의 섬에 밀집되어 있다.

교회 회의의 미디어 베이 아카디아 자매가 자녀들을 교리와 분명하게 주시한 1924년에 밀알성도 프리스코 교회가 처음으로 이곳에 설립을 만든다. 이후 사모아에서 소수의 다른 초기 회원들이 도착하였으나, 1954년 9월 5일에 이어서 14명의 밀알성도인 수바시에서 정식으로 지은 지부를 조직하고 일대 건물로서 예배를 보다 시작하였다. 이처럼 작은 지부로 출발한 때로부터 30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는 이곳에 온천 목목의 명회와 여섯 개의 와드로 이루어진 세 개의 스테이크와(1983년에 조직), 열다섯 개의 지부로 이루어진 두 개의 지방부가 있다.

한계 모임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한국같이 교통과 통신에 대한 문제가 회원들, 특히 수도인 수바 교외 지역과 비로 떨어져서 지속하고 있는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파지는 급여 수준이 낮은 관계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차를 살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편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1987년 말에 일어난 무혈 군사 혁명 이후에 새로운 파지
정부는 일요일 대중 교통 수단의 운행을 불법으로 선언하였다.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믿고 있는 종교인 일반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만이 각 마을에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밀알성도인 이들은 더더욱 지부나 와드로부터 먼 곳에 살고 있다.

빌시 우쿠바라바의 부부와 여섯 자녀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나우소리 예배당까지 걸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어떤 사람들
우리가 비슷기도 했으나, 우리는 지나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라고 우쿠바라바 형제는 말한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정부가 전에 발표하였던 법률을 다소 완화하여 연중 일정 기간 동안은 일요일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다른 교통 수단이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이 이들 신앙의 부스를 타고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으나, 버스 운행 시간이 맞지 않아 종교 교회에 늦게 도착하거나, 때로는 일찍 교회를 나서야 한다.

일부 와드나 지부에서는 개인 트럭을 임대하여
회원들을 교회까지 태워주기도 했으나, 나머지 와드의
터모치 라투 감독은 이런 방법 역시 평안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와드 예산보다 많은 돈을 교통비로 지출해야 했なのです. 그러니 저는 사람들에게 각자 신앙을 통하여 교회까지
오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석율이 떨어졌으나
지금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라투
감독은 말한다.

교통 문제는 또한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행하는
회원들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집에서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파지 수바 스테이크의 이노시 나가 스테이크
부정은 이렇게 말한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저자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투야 지역의 서부부회 파문으로 분산하고 있는 라이 무라이 자매들은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매들에게는 방문 교육을 하며 타로서 교육 방문 교사들에게 우연히 보낸다고 한다. 부정의 신분 행사회의 지도자들은 특정한 마을에 가정 복음 교사들을 여러 조그룹에 삼아 있는 회원들에게 한 번에 모두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시카호가 지역의 서부부회 파문장 시리아 바로 자매는 가장 멀리 살고 있는 자매들을 보기 위해 매달 비스를 타고 산골 마을로 가곤 한다. 바로 자매의 오전 8시에 집을 떠나 조오에 집으로 돌아온다. 그곳에 머무르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_normalsims雕

제가 타고 돌아오는 차가 머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바로 자매는 말한다.

바바시에 있는 회원들은 서로 가까이 살고 있는 하지만, 바바 스테이크 서부부회 파문장인 카고스 다이아 자매도 동신교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도 다이아 자매의 경우는 교회가 후원하는 국민학교의 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에는 다니는 자녀들이나 아이들이pes

사태화하여 달리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에게 자비없지만 없다고 회원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저는 일부 회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고 있는 일에 관하여 관심을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우리의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한다는.

라투 감독은 교회내에서, 심지어는 새로운 회원들 사이에까지 그러한 장난감이 크게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간資金을 이렇게 말한다. "저는 복음이 사회적 신분이나 종족, 민족, 피부색 등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모임을 하면서도 인도인들 사이에 파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것을 안심시키기 위해 예를 들었다가.

상감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고려하는 것과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설립적인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두 집단에 속한 교회 회원들은 고등 평의회와 스테이크 또는 외부 보조 조직, 감독단과
위 오른쪽 :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아홉살이었던 모우쉬미 시이는 바로 한달 전에 라키라키 지부에서 친절을 받았었다. 위 왼쪽 : 농장
총관리인인 우리소녀 텔리는 수도 수바 근처의 라미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였다. 아래 : 자신의 딸 아들 라시카(왼쪽)과 프라무르 라시카와 함께 있는 라 쿠마리, 이들은 마부야 지부 회원들이다.
신권 정원회, 그리고 복음 선교사로서 서로 함께 도우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존중의 정신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도착 과정인 바로 자매는 인도계 출신으로 자신의 제1보로인 브리지 와이지에 대해 "저는 와이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상호부교회 일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사회를 보는 동안 제 어들을 봤다는 등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저도자들은 또한 모든 회원들이 교회 모임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배우도록 배려하고 있다. 파지의 공식어는 영어이지만, 외판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영어로하는 회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속어는 배우고 있다. 따라서 감독단과 지역단장은 종종 성찬식에서 세 사람의 연사가 맡을 것을 각론하기도 한다. 한 연사는 최두로, 다른 한 연사는 최두로, 그리고 또다른 연사는 영어로 하는 것이다. 상호부교회와 신권 정원회의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와드와 지부의 활동에서는 파지 음식과 인도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인도계 출신과 파지 토착민 출신의 발일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사회의 다른 곳에서 느끼는 것보다 서로에 대해 더욱 친근하고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관습과 문화

파지 토착민들에게는 부족의 관습이 생활의 주요한 부분이다. 이 나라의 방면 곡곳에 파지인 마을이 흩어져 있으며, 각 마을에는 마을의 법률을 결정하는 총장이 있다. 사실 선교사를 새로운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총장의 허락을 받기 위해 전통 행사에 참여해야만 한다.

마을에서 사람들은 향동 교단과 비슷한 제도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장에게 바치며, 이에 대해 총장은 음식과 의복과 주거지를 마련해 준다. 이런 사람이 마을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들은 그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관리를 갖는다. 라투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이마 전례 지역 가족들이 저에게 사생아로 태어나 아버지가 없는 천자님들의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파지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이 연로한 사람들과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생활들은 초대받지 않는 경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안된다. 또한 이런 마을 사람이 다른 마을을 가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수바 스테릭의 고등 편의관 알렉스 로베당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그러한 금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마을에서 온 가족들이 저 마을에서 온 가족들에게 가장 복음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베당 형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개판이고 어떤 문화에 이르는 것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만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파지의 인도계 시민들 또한 강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많은 인도계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중재 결혼을 한다. 일반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사회적 집에서 하나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동안 시아바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결정권을 갖게 된다.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남편은
원습에 따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회에 가입하더라도 그의 아내는 교회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인도계 의견들은 현무교를 믿고 있으며, 일부 인도계 교회 회원들은 가족들이 여러 세대 동안 지켜왔던 믿음을 포기한 것으로 인해 배척을 당하고 있다. 피자 수바 쟁구단장 별도로 분리하고 있는 피터 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 있는 종교적인 전통이 전통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철학이다. 그러나 반면 그가 주님의 사명을 지지하는 전통이라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

피자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장점의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제 생각에 그것은 사람들과의 특별함을 나타낸다. 이웃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알렉스 로렌드 형제는 말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은 어떤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가르침들입니다."라고 피터 리 형제는 말한다.

리 형제의 부인인 세레아나 자매도 이에 동감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면일 때 제가 여론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디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파우로 아가에 자매는 어떤 한 자매가 막일석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항상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없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하루는 제가 자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 자매는 하안 드레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을 사서 그자매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에 자매는 말한다. "라고 아가에 자매는 말한다.

나디의 성도들은 또한 회원들이 통고에 있는 누구만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통장의 여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50달러 정도여지만, 많은 가족들은 이 돈을 축출할 만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매년 회원들이 함께 지역 민간서나 문화 행사를 후원하여 돈을 모으는 후에, 직업이 없거나 돈을 축출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나 가족을 선정해 이들 8월에 있는 연례 정원 방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피자 성도들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포근한 성품들로 인해 많은 회원 선교사가 되고 한다. 와드나 지부 회원들은 교회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경우가 혼합하다. 세례시 라투 형제와 세레아나 라투 자매는 자신들이 침례를 받은 다음 주에 선교사들에게 두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지금은 라투 형제와 다섯 친구가 이미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서로 잘 이워진다는 점입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인사만 하더라도 그 집을 방문하면 5분이나 1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혼란 일일 것입니다."라고 수바 나시누 와드의 수바임 박사는 말한다.

피자 출신의 선교사들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소망이 복음을 선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피자에서 복음사고 있는 115명의 선교사 중에는 38명의 피자 출신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이 있다. 피자에서 교회 초창기부터 지역 출신의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4년 5월에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가 피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민국 관리는 한변에 오직 두 명의 선교사만이 입국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래서 필요한 선교사 숫자의 나머지 부분은 지역 출신의 선교사들로 충당되었다. 그 후 미국인 선교사가 입국할 수 있는 숫자가 점점 늘어 16명까지 되었으며, 1987년의 협약 이후에는
위 원쪽: 일 어섯 살난 진자니타 싱과 바 지부의 초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그녀의 어머니.
위 오른쪽: 바 지부 회원인 요베사 나우시가 사탕수수 농장 일자리를 하기 위해 합주에게 명예를 써두고 있다.
“저는 한결을 한결을 복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녀 말한다.
아래: 바이오네 소로나바루는 제과 회사에서의 일자리를 그만두고 과자와 나디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한 재난이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자인들은 여전히 자국에서 복사하고 있는데, (소수의 인도계 피자인 선교사들이 인도로 부름받아 복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받아 들이는 데가 피자 출신이 아닌 선교사들이 때때로 추상적이고 억인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출신 전장과 자매 선교사들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 “우리 말로 복음을 가르치면 좀 더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태자들과 우리의 느낌을 잘 나눌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구도자들이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라이시야사 메이코 선장은 말한다.

나발 센 장자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협판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메이에서 기존 마음으로 복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계 출신인 선장은 자신이 인도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도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단지 12명의 지역 출신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38명의 선교사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지역 출신 선교사들이 복사하게 될 것입니다. 1세대 회원들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갈 나이에 이르고 있는데, 또한 그들은 세미나를 통해 복음 원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라고 나가 스테이크 투쟁은 말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선교사 프로그램이 피자 인동물의 젊은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선교사들이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선교사들이 활동적이며, 선교 사업을 통해 간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도력과 그들이 온 생애 동안 지녀야 할 선교 사업에 관한 책임을 다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타마부우 와드의 소셉 스카야 감독은 말한다.


“저는 해외로 복사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복사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서 복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선교 사업을 함으로써 제가 사람들에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통하여 이곳 피자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렉스 로브란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피자로 떠나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하와이 캠퍼스로 공부를 하려 가거나 다른 섬에서 작은 빌딩에서 걸으면 또 다른 경제적적인 기회가 더 많은 나라로 직업을 얻기 위해 떠나고 있다.

신앙과 기적

피자의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주교 그들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는 강한 신앙을 지닌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도계 자매로 승자 한 살년 수니타 쿠마리가 교회에 들이cosity 살해를 때, 그녀의 큰 오빠는 그녀를 결혼시키 이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라키라키 지적의 회원들은 수니타 자매와 함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결국 결혼은 실패되지 않았으며, 그녀는 결혼을 받아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지적 회원들은 다시 수니타 자매와 함께 이번에는 저가가 직접을 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급식하고 기도를 하였다. 그녀는 4년 전에 학업을 마친 이후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 온는데, 이제 그녀는 “실탈조를 내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주일 후에 수니타 자매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비서로 채용되었으며, 그 이후에 과거 수바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모나 델과 조오지 델이 라우도가 근처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사탕수수를 재배하기로 결정한 해에 가뭄이 들었다. 여러 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그 농부와 그들이 목숨을 싸기 위해 고군신으로 농장 관리인은 고무로 삼자 못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였다. 델 형제 부부와 이들의 아들을 공식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서 돌아와 보니 관리인은 “당신들이 큰 축복 받았습니다. 봉급 당신들의 사탕수수가 살아남을 충분한 비가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다.

후일 그들의 몰랑가가 거의 바다가 되자 델 부부는 다시 비가 오기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다. 머칠 후 밤에 가족이 배란마에 없어 있는데, 멀리서 구름이 머오르는 것이 보였다. 델 자매는 그것을 보고 “지금 비가 쏟아진다면 정말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비가 올게요.”라고 낱말이 대답했다.

결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폭우가 내리 몰랑가가 차고 넘겼으나, 그들의 집으로 이기지는 도로는 첩지도 않았다.

수바시 다스와 로셀린 다스 부부와 이들의 아들이 아미트와 희안도는 정신을 발아하여 가족 인생을 받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으나, 중분한 돈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다스 형제는 감독으로 부름받고 나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그러나 가족이 있는 도중으로 동가까지 가는 비행기표 한 장 밖에 살 수 없었다. 다스 형제는 난편 혼자서 다니도록 걱정을 해주었으나, 다스 형제는 “그럼 수는 없소, 우리는 모두 함께 가야만 되오.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가족은 그 다음 두 주 동안 일요일에 급식을 하였다. 두번째 주가 끝나갈 무렵 다스 감독의 고용주가 그에게 대장의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다.

더 큰 즐거움이 있음


바시가지 근교에 위치한 농업 지역인 파사투에는 조사사 당사자가 만 이천 명이나 되는 사탕수수 농장을 가꾸며 살고 있다. 그는 강토로서 바 지부에 다니고 있으며, 복음 교리반 교사로 복사하고 있다. “저는 매년 농장에서 250톤에서 270톤에 이르는 많은 양의 사탕수수를 수확하면 향년이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별일상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돌을 버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고 계시다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지난해보다 적은 양의 사탕수수를 수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나우사 형제의 이러한 감동은 과거에 있는 빌일성도들의 느낌을 대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존트라티프
영적으로 준비됨

데비드 마첼

존트라티프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갔다. 방문한 손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존트라티프는 옷을 착하고 마리를 숭고 “사와르 디 크랩”하고 대국의 전통적인 의사를 하였다.

존트라티프 형제는 가날프로 섬세해 보이는 사람으로 46세인 그의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였다. 이 젊음을 찾아온 손님은 존트라티프 형제에게서 경건한 품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세상에 매혹되지 않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 태국 방콕 태생으로 교회 연예사로서 일하고 있는 존트라티프 형제는 심대 시절에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여덟 살이 아홉 살 때에 저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땅을 찾아보았을 때에도 비로소 저의 왼쪽 눈만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열세 살 때에 왼쪽 눈마저 시력을 잃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밝고 어두운 정도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존트라티프 형제는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잃은 후에 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

“저는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말일성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저의 집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는 자전거를 세우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저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들 피투혼을 얻은 존트라티프가 음식을 판는
수레 앞에 서있다. 이 음식점은 아내인 존트라티프
자매(왼쪽)가 운영하는 것으로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팔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폰차인 준트라티프 형제는 대국에서
세미나리와 대학부 학생들이 사용할 자료들을 반여하고 있다.
그는 슬로베니아에서 보내준 영어 녹음 테이프를 듣고 이를
반여하여 컴퓨터에 입력한다. "안 대폰 감주 : 아들 피투폰과
함께한 준트라티프 형제와 지매.

둘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선교사들은 저에게 요청
스미스와 첫번째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요셉 스피어가
선한 사람이며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재의에 따라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선교사들이 저에게 전해주신 말들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어졌을 때, 저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등장하기 따라
훌라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로들은 다시 울 나섰을 때였으며, 이전에는 영문
저자로 된 본문경과 제임스 이 탐배지 장로가 쓴
신앙개요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폰차이는 자신이 그 당시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온활업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폰차이가
아홉살 때에 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열 살
때에는 가장 세금과 영어 공부를 시켰다. 그리고
후일 폰차이는 영어로 시리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설시하는 4년제 고등학교 통신 과정에 등록하였다. 그는
과정을 이수하여 선교사들이 높게 차치해 내게 맡겨
오기 암사전에 미국 고등학교 졸업정을 받았다.

준트라티프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 날을
돌아来看 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돌았다. 저는 선교사들이 준 책을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두 가지 종교의 관습을 지켜보면서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저도
불교교도로 양육되었으나, 중국인의 후손이었던 저의
부모님께서는 절날 의식과 조상에 대한 의식 등과 같은
중국의 종교적 관습을 지키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으며, 오래전 어떤 시점에 십자가 성의 같은 주님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 우주에 그 안에 있는 흔들어진 것들과
아울러운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계시야만 했습니다."

준트라티프 형제는 1976년 12월 6일에 스포르 페말
의 나이로 친절을 받았다.

그 당시에 이미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준트라티프
형제는 두 동생의 반대에 부담했다. "동생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기술자였으며,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불교주인이었고, 그들은 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다."

3년 후, 동생들은 브리갑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
입학하였다가 준트라티프 형제의 결심을 다시 반대하였다.
"동생들은 제가 성경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저를 잡아 데려와야 하는 난처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준트라티프 형제는
당시를 회고한다. 형의 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해 동생들은
이러한형제에게 학교에 유권한 반대를
이용하였다. 준트라티프 형제는 계산을 저버리고 학비를
마련한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동생들은 자신들이 계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형이 실례하다는 경우에 이를 저버리고
형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준트라티프 형제는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여
하와이 브리갑 영 대학교에 등록을 하였다. 항공 회사에
편지를 써서 비행기 십을 반 값으로 하여주실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았더니, 항공사측에서는 무료로 비행기표를
제공하겠다는 답장을 보내 주었다. 폰차이는 대학에서
강의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또한 녹음된 교재를 들으면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한편 이야기 역사 테이프를 배겨쓰는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태국으로 돌아와서 7개월 동안 준트라타프 형제는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교회 번역사로 일하게 되었다.

“저는 저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직업을 찾고 살다는 기도를 했었는데, 번역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 교제와 신학 연구원 대학부 교재를 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트라타프 형제는 자신에게 영어 원문을 읽어줄 사람을 고용했었다. 그가 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녹음하면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들려주는 작업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몇 부분의 두 작업은 준트라타프 형제가 타자가의 사용법을 배우면서 잡아졌다. 나중에는 타자가를 컴퓨터로 바꾸었는데 이로써 원고의 수정과 교정이 더욱 편하게 되었다. 더욱이 준트라타프 형제는 현재 영문 원고 대신에 같은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받아 이를 변경하고 있다.

준트라타프 형제는 브리가 잉 대학교에서 돌아온 지 몇 년 뒤에 아내인 크완시아를 만났는데, 그녀는 태국에서 봉사한 기원 선교사였다.


“저는 선교사들이 저희에게 토론을 가르칠 때, 그들이 가르친 복음의 메시지가 참되고 훌륭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기억합니다.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면서 저는 복음이 훌륭한 것이며 참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준트라타프 형제는 말한다. □
배우자 의

델린 엘 프로이트
행복

어느 결혼 관계에서든 각 배우자는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거나 또는 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젊은
남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
중이었다면 그 여성이 남편에게 그들
직으로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까지 남편을 가차없이
나무랐습니다. 그녀는 말과 행동으로
남편에게 그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그가
쓸모없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둘 다
이지적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연행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여성에게 “무엇을
얻고 싶으신 것인지가?”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남편을
비난함으로써 남편이 자신의 말이
올다는 것을 깨닫고 돌연히 자신이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행동은 남편으로 하여금
그녀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구에 기간 동안 그가
얼마나 열라했으며 또 그의 사랑이
얼마나 일정적이었던지 간에 계속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연세가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식어버릴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면 젊은이들은 “우리의 사랑은
맞춤을 몇 번 했다고 약해지지
않아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는 해도 그 자리는 흉터가
남으며, 흉터 자리가 많은수록
사람이 커질 사라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우하는 방식에 대응하는 데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걸듭니다.
만일 냉장고 손잡이를
만들 때마다 심한 전기 충격을
받으며 이러한 상태가 매일같이 여러
일 동안 계속되면 여러분은 그
냉장고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냉장고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혐오감마저 느낄 것입니다.

이는 한때 사랑했으나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부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해에 걸친 그런 종류의 학대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감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는
당신의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나부 성전 건축, 케리 이 스미스 작
요셉 스미스와 브리앙 엠이 성전 건축가인 윌리엄 윌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요셉이 순교당한 후에 성도들은...
태평양 제도 국가인 푹지가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아름다운 꽃들 속에 수련이 피어 있다. 그러나
복음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움을 주어 이
천국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신앙의
심 푹지”, 32쪽 참조